

# 최근 국제석유시장동향과 油價 전망

崔海廣  
〈석유협회 홍보실〉

**결프** 전쟁후 세계 경제는 미국을 축으로한 세계질서의 안정을 배경으로 지속적인 유가 안정 및 경기회복이 전망되어지고 있다. 또한 미국의 원유 수입은 경기의 부진으로 상반기중에 전년 동기 대비 11.8% 감소하였으며 비축유 역시 전년 동기 대비 4.1% 감소하였다. 그러나 소련의 석유생산감소, 노후화된 북해산 석유 시추설비의 보수로 인한 생산감소 및 이라크와 쿠웨이트의 수출금지등으로 대 OPEC산 원유 수요량은 점진적으로 증가해 OPEC가 밝힌 3/4분기 상한선을 이미 지난 6월에 넘겼으며 더우기 4/4분기 성수기를 대비해 주요국들은 석유비축을 늘리는 추세이고 또한 경기 회복에 따른 자연증가세까지 감안하면 4/4분기 수급상황은 타이트해질 것으로 전망되어 유가인상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국제유가 추세는 OPEC油의 경우 결프戰 종식후 한때 배럴당 15달러 전후대로 떨어지는등 하락세를 보였으나 그후 차츰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지난 6월에는 배럴당 평균 17.21달러, 7월에는

18.20달러, 8월에는 18.47달러를 형성하는등 꾸준히 상승했으며 지난주에는 19.05달러로 다시 올라섰다.

그러나 현재이러한 가격이 OPEC가 지난해 7월 총회때 설정한 기준유가(배럴당 21달러)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국제원유가는 세계 최대산유국인 소련의 산유량 감소와 성수기의 도래등, OPEC(석유수출국기구)의 油價인상노력등에 영향을 받아 당분간 상승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OPEC 13개 회원국은 지난 9월 25일 4/4분기중 OPEC產 원유쿼터를 하루 2천3백65만 배럴로 3/4분기의 2백30만배럴보다 1백35만 배럴을 늘리기로 합의하고 기준유가 21달러선을 고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11월까지 유가가 21달러선에 크게 못미칠 경우 비상회의를 소집기로 결정하였으며 대신 각국가별 쿼터조정은 하지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번회의가 향후 석유가격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되어진다.

왜냐하면 OPEC 회의에 참석한 석유장관들은 지

난해 7월 총회때 설정한 기준油價인 배럴당 21달러로 회복시킨다는 목표아래 그동안 산유쿼터 조정문제도 진통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이날 합의된 새産油쿼터는 현행쿼터(2천2백29만8천 배럴)보다 1백35만2천배럴이 증가한 것이나 OPEC 최대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주장한 2천4백50만 배럴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그동안 OPEC의 실제 생산량인 2천3백50만 배럴보다는 15만배럴정도 웃도는 수준이다. 이 같은 OPEC의 새생산 쿼터는 IEA(국제 에너지기구)가 예측한 연말까지의 OPEC산 원유 수요량과도 거의 같다.

이번 회담에서 OPEC는 개별회원국의 생산쿼터를 할당하지 못한채 전체생산량만을 결정해 실질적으로는 회원국들이 산유능력만큼 생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이는 걸프전 이후 유엔의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이라크와 유정피해를 복구하고 있는 쿠웨이트의 생산량을 처리하지 못한 때문인데 이제까지의 관행에 비춰볼때 생산상한선이 제대로 지켜질지는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물론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극소수 나라만이 증산여력을 보유한 형편이어서 무한증산 경쟁의 촉발등은 불가능하다. OPEC의 이러한 유가상승 노력이 아니더라도 유가가 계속 상승할것이라는 것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볼때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소련의 산유량 급감은 향후 유가상승의 주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소련은 지난해 하루 평균 1천2백40만 배럴을 생산했으나 지난 8월의 쿠데타 미수등 政情불안 및 채유시설 노후화로 인해 최근에는 산유량 1백만배럴 이상 감소했다. 성수기 도래에 따른 석유수요 증가도 국제유가를 불안케 할 또 다른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세계 석유 수급 전망을 본다면 세계 석유 생산능력은 91년 현재 68.59백만 b/d로서 90년보다 3% 하락한 것으로 OPEC 28.66백만 b/d로 41.8%를 점하고 있으며 OPEC 국가중 걸프지역 국가들은 16.70백만 b/d로 24.3%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셀레스티노 아르마스 OPEC 의장은 현재 하루 2천3백만 배럴을 밀돌고 있는 세계의 OPEC油 수요가 금년말까지는 2천3백50만배럴, 내년 1/4분기에는 2천5백만배럴로 각각 증가할 것으로 보고있다. 이렇게 볼 때 OPEC가 산유량을 늘리지 않는 한 현 OPEC 산유량(하루 2천3백만 배럴) 만으로는 수요를 충족할 수 없어 국제유가는 당분간 오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향후 국제유가는 OPEC油의 경우 현재 배럴당 19달러 수준에서 올 4.4분기에는 2달러정도 오른 21달러를 형성할 것으로 아르마스 OPEC 의장은 내다보고 있다. 이와함께 배럴당 21.62달러(9월 17日 뉴욕시장기준)인 美國 서부텍사스産重質油(WTI)도 금년말에 24달러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세계의 소식통들은 전망하고 있다. ♣

세계 석유 수급 전망

(단위 : 백만 b/d)

		1990	1995	2000	2005
소 비	O E C D	37.6	40.6	40.4	41.5
	동 구 · 소 련	10.4	12.2	13.2	14.1
	개 도 국	17.9	22.2	26.4	29.3
	합	65.9	74.0	80.0	85.0
공 급	O E C D	15.8	15.1	13.7	12.2
	동 구 · 소 련	11.7	11.1	11.4	11.7
	중 동	17.4	24.8	28.2	32.3
	개 도 국	20.2	22.7	25.4	27.4
	정 제 증 분	1.3	1.3	1.3	1.4
합		66.4	75.0	80.0	85.0
재 고 변 동		0.6	0	0	0

(자료) IEA